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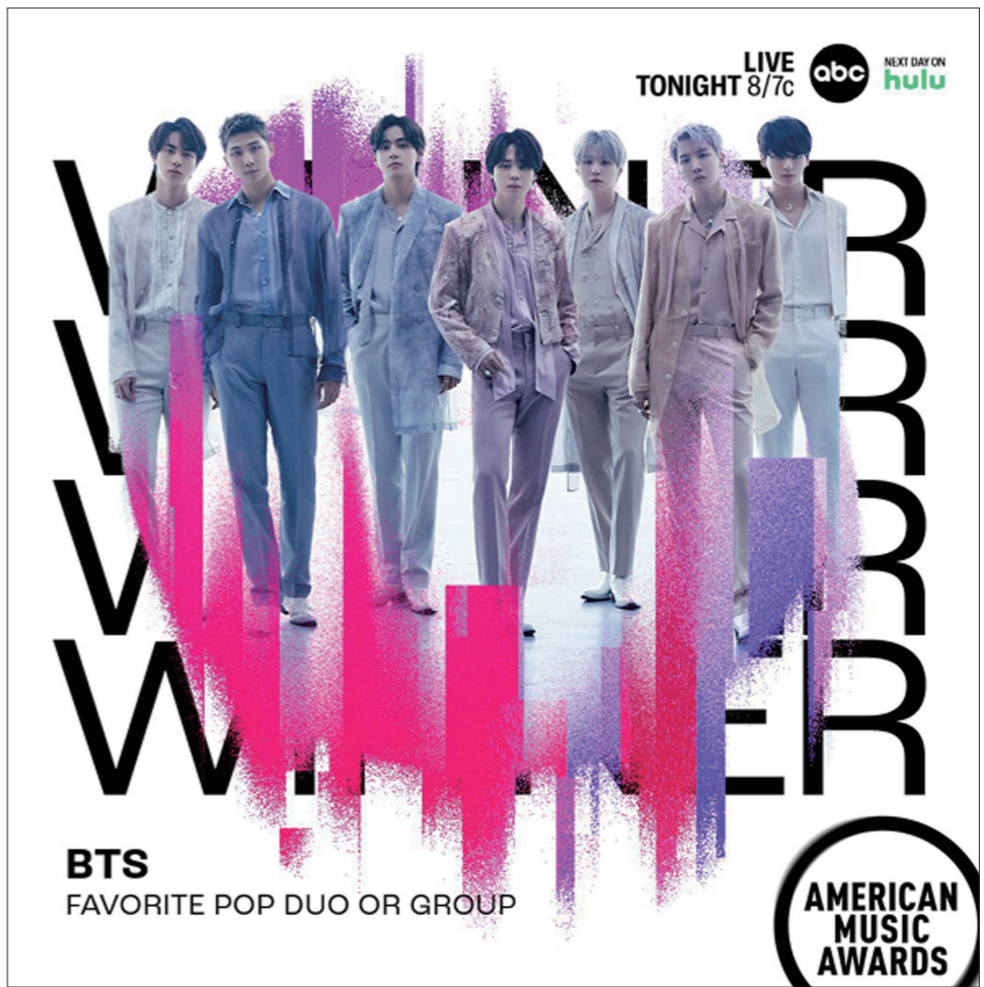
방탄소년단, 美 'AMAs' 5년 연속 수상·2관왕...K팝 카테고리 늘까

올해 신설 '페이퍼릿 K팝 아티스트' 초대 수상자 시상식 중에서 팬투표 받으며 시상식 흥행몰이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통하는 '2022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s)에서 5년 연속 수상 기록을 무난히 썼다. 방탄소년단은 21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펼쳐진 'AMAs'에서 후보에 올랐던 '페이퍼릿 팝 듀오/그룹(Favorite Pop Duo or Group)'과 '페이퍼릿 K팝 아티스트(Favorite K-Pop Artist)' 2개 부문 트로피를 모두 가져갔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팬덤 투표로 수상자를 가리는 시상식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음악 팬덤 '아미'를 보유한 방탄소년단의 수상은 일찌감치 예상됐다. 예정된 멤버들의 순차적인 군 입대로 단체 활동 공백기를 보내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이날 시상식에 불참했다. '황금 막내' 정국이 비슷한 시기에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서 공식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드리머스'를 부르는 등 개별 활동 병행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을 두개나 가져가며 저력을 과시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이번 '페이퍼릿 팝 듀오/그룹' 부문에서 콜드플레이, 이매진 드래곤스, 모네스킨, 윌리퍼블릭과 경합해 해당 부문에서 4년 연속 트로피를 거머쥐는 기염을 토했다. 'AMAs' 역사상 이 상을 4번이나 가져간 팀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1974년 출발한 AMAs에서 이전까지 '페이퍼릿 팝 듀오/그룹' 최다 수상 기록은 방탄소년단을 비롯 에어로스미스, 더 블랙 아이

드 피스, 홀엔즈, 윌 디렉션이 각각 3번씩 수상으로 동률이었다. 방탄소년단이 'AMAs'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17년이다. 이 시상식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퍼포먼스를 펼친 이들은 이듬해인 2018년 '페이퍼릿 소셜 아티스트(Favorite Social Artist)' 수상을 시작으로 매년 상을 받았다. 2019년에는 '페이퍼릿 소셜 아티스트'·'페이퍼릿 팝 듀오/그룹'·'투어 오브 더 이어' 등 3개 부문에서 트로피를, 2020년에는 '페이퍼릿 팝 듀오/그룹'과 '페이퍼릿 소셜 아티스트' 부문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엔 대상 격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를 비롯 '페이퍼릿 팝 듀오/그룹'과 글로벌 히트곡 '버터'로 '페이퍼릿 팝 듀오' 부문까지 총 3관왕을 안으며 해당 시상식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다. '페이퍼릿 K팝 아티스트'는 'AMAs'가 올해 추가한 부문이다. 방탄소년단이 대상을 받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K팝의 영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상의 초대 수상자 역시 방탄소년단이다. 방탄소년단 외에 올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찍은 '블랙핑크'를 비롯 '세븐틴'(SVT),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 트와이스 등 경쟁한 K팝 간판 그룹들이 후보로 나섰지만 아미의 화력이 강력했다. 'AMAs'는 자신들과 그래미 어워즈, 빌보

드 뮤직 어워즈를 포함한 미국 3대 대중음악 상 처음으로 중 K팝 시상 부문을 따로 만들었다. 3대 대중음악상을 제외하고 주목할 만한 시상식 중에선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와 이 시상식의 유럽 버전인 'MTV EMA'가 '베스트 K팝' 부문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한편에서는 작년 방탄소년단에게 팬투표가 쏠릴 것에서 보듯 K팝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K팝을 오히려 테두리 안에 가둬 주요상에 들어올 수 있는 답장을 높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AMAs'에서 주요 부문에 오른 K팝 팀은 방탄소년단밖에 없다. 블랙핑크가 빌보드 차트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주간 차트 1위 등을 차지하며 기록을 썼지만 K팝 부문 후보에만 오른 것이 예다. 하지만 올해 후보들이 워낙 경쟁했고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외 팀들은 북미 시장에서 다른 팀을 위협할 만한 성과는 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이날 'AMAs' 첫 레드카펫을 밟기도 했다. 특히 돌아와야 할 부분은 'AMAs'는 대중의 흐름을 적극 반영하는, 시장 친화적인 시상식이라는 점이다. 1974년 출발한 AMAs는 1998년까지 라틴 카테고리 시상 부문이 하나도 없었다. 당시 홀리오 이글레시아스, 리키 마틴 등 라틴 팝스타들이 크게 인기를 끌자 '페이퍼릿 아티스트 - 라틴(favorite artist—Latin)' 카테고리를 추가했고 이글레시아스를 첫 수상자로 선정했다. 현재는 '페이퍼릿 라틴 /듀오 그룹', '페이퍼릿 라틴 앨범' 등 라틴 관련 카테고리만 5개다. 이후에도 디스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등 시대에 인기를 끈 장르들을 적극 카테고리에 추가



하거나 또 떨어졌다.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출신 위즈키드(WizKid) 등 아프로비트(afrobeats·1970년대 나이지리아에서 유행한 음악으로 재즈, 펑크 등을 섞은 장르) 계열의 뮤지션들이 인기를 끌자 '페이퍼릿 아프로비트 아티스트(Favorite Afrobeats Artist)' 등을 추가하기도 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대중음악 장

르는 K팝이다. 'AMAs'는 흥행을 위해 '페이퍼릿 K팝 아티스트' 수상자를 막판에 발표했다. 특히 시상식이 시작되고도 관련 투표를 계속 받았으며 수상자 발표 30분 전에 투표를 마감했다. 이번에 K팝 팬덤의 호응이 컸고 내년에도 K팝 강세가 이어진다면 'AMAs' 내 라틴팝 카테고리처럼 K팝 관련 카테고리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국 '드리머스', 아이튠즈 102개국 1위...빌보드 '핫100' 진입할까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식 사운드 트랙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5·전정국)이 솔로로도 전 세계 음원차트에서 인기를 확인하고 있다. 21일 대중음악계에 따르면, 정국이 '2022 피파(FIFA) 카타르 월드컵' 공식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으로 전날 오후 2시 발표한 '드리머스'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102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용기를 내어 꿈꾸고 그 꿈을 이뤄내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한 곡인데 아랍 풍의 활기찬 리듬이 곳곳에 배치돼 흥겨움을 더했다. 카타르의 대표적인 가수 파하드 알 쿠바이시가 협업했다. 방탄소년단 내에서 '황금 막내'로 통하는 정국은 전날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이 곡을 불렀다. K팝 가수가 타국 주최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피파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퍼포먼스 영상은 약 7시간 만에 270만뷰를 찍었다. '드리머스'는 아프리카계 미국 가수 트리니다드 카르도나·나이지리아 출신 다비드·카타르 가수 아이샤가 함께 부른 '하야, 하야(Hayya, Hayya)',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힙합스타 오수나(Ozuna)와 프랑스케 콩고 래퍼 김스(Gims)가 함께 한 '아르보(Arhub)', 아랍계 여성 가수들이 부른 '라이트 더 스카이(Light The Sky)'에 이어 공개된 '카타르 월드컵' 네번째 공식 주제곡이다. 그간 선보인 월드컵 주제곡 중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이 꽤 된다. 푸에르토 리코 출신 라틴 팝스타 리키 마틴이 부른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주제곡 '컵 오브 라이프(Cup Of Life)'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발표된 사카라의 '와카와카(Waka Waka)'다. 두 곡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각각 최고 45위와 38위를 찍었다. '드리머스' 역시 '핫100'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정국은 최근 미국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찰리 푸스와 협업한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로 '핫 100'에 17주 연속 차트 인하기도 했다. 뉴스

기타리스트 이상순, 안테나와 전속 계약

아티스트 유희열·정재형·유재석·이미주 등 소속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이상순이 안테나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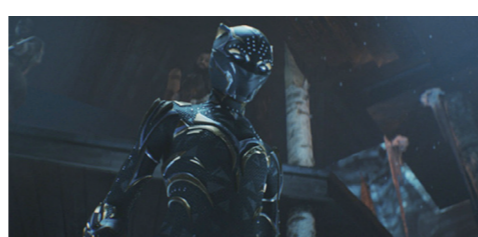
소속사 안테나는 21일 "이상순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 이상순이 자유로운 음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상순은 그간 밴드 몰리코스터, 베란다 프로젝트로 활동해왔다. 다수의 아티스트들과 협업은 물론, 지난해 6월 첫 솔로 앨범 '이상순(Leesangsoon)'을 발매했다.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JTBC 음악 예능 '뉴페스타'에도 출연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 중이다. 이상순은 "안테나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동료 아티스트들과 즐겁게 음악 활동을 펼쳐보고 싶다. 함께 만들어 가는 이야기에 기대부탁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안테나에는 유희열, 정재형, 유재석, 이미주 등이 소속되어 있다.

흑평에도... '영화 블랙팬서2' 전 세계 수익 7000억원 ↑

개봉 2주 누적 수익 5억 4630만 달러 달성

마블 새 영화 '블랙팬서:와칸다 포에버'가 미국에서 2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달렸다. 영화는 전 세계 수익 5억 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Box Office Mojo)에 따르면, '블랙팬서:와칸다 포에버'는 지난 18~20일 전미 4396개관에서 6730만 달러를 벌어들여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미국 누적 수익은 2억8700만 달러(약 3850억원), 전 세계 누적 수익은 5억 4630만 달러(약 7325억원)다. 다만 미국에서도 '블랙팬서:와칸다 포에버'의 개봉 2주차 매출액은 첫 주와 비교할 때 크게 감소했다. 첫

주말 수익은 1억8000만 달러를 넘겼으나 2주차 주말엔 62.9% 감소했다. 영화는 2018년에 나온 '블랙팬서' 후속작이다. 국왕이자 블랙팬서였던 '티찰라' 사망 이후, 와칸다 왕국이 회귀 금속인 비브라늄을 노린 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전작에 이어 라이언 쿨러 감독이 연출했고, 러티샤 라이트, 다이나 구리라, 루피타 뇽오, 테노치 우에르타 등이 출연했다. 2위는 새 영화 '더 메뉴'(The Menu)(주말 수익 900만 달러)였다. 이 작품은 외판 섬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초대된 12명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기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랄프 파인즈, 안야 테일러조이, 니콜라스 홀트 등이 출연했다. 이밖에 미국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는 3위 '더 초즌 시즌3'(The Chosen Season 3: Episode 1 & 2)(820만 달러·첫 진입), 4위 '블랙야당'(450만 달러·누적 1억5600만 달러), 5위 '티켓 투 파라다이스'(320만 달러·누적 6150만 달러) 순이었다.



김호중, 광주 콘서트 성료...보랏빛 물결

가수 김호중이 '아리스트라' 광주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김호중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 '아리스트라'를 열었다. 이날 '나의 목소리로' 광주 공연의 시작을 알린 김호중은 '전상재회'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우산이 없어요' 등을 샌드아트와 함께 선보였다. 이어 '고향여' '청춘을 돌려다오' '고장난 벽시계' '파트너' 등 트로트 무대를 연달아

선보이면서 공연장을 열기로 가득 채웠다. 또 '살았소' '고맙소' '빛이 나는 사람' '마이웨이(My Way)'까지 20곡에 달하는 곡을 라이브로 선보였다. 특히 20일 오프닝 무대로는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의 '일 마레 칼모 델라 세라(Mare Calmo Della Sera)'를 선곡해 특별함을 추가했다. 김호중은 오는 12월 3일부터 4일 일산 킨텍스 1전시장 1홀에서 콘서트를 갖는다.